

1997년 6월 2일 월요일

□ 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민주권력창출 과제 남긴 6월항쟁

이번에 10주년을 맞이하는 6월항쟁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운동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사건이었다. 올해 6월에 일어났던 노동법·안기부법 반대시위는 6월항쟁의 정신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그 영향력을 뿌리깊이 미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예이다. 따라서 이번에 열린 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세미나는 그 개최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하겠다. <편집자>

◇ 6월항쟁 10주년의 재조명

6월 항쟁은 4.19, 부마항쟁, 5.18광주항쟁 무력 진압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었을 뿐 아니라 6월항쟁 자체도 그리 대규모 유혈 사태를 동반하지 않았기에 극적인 효과가 반감되었을지 모르나, 이후 이루어진 문민화, 민주화 성과들이 간헐적이고 부분적인 것이어서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6월 항쟁이 역사적 조명을 비껴가게 된 원인을 좀더 부연해 보면 우선 6.29선언의 장본인인 노태우 대통령과 그의 정권을 들 수 있다. 문서작성 과정에 있어서의 불투명성과 내용의 정략적 속의 양면에 내포된 기만성을 스스로 잘 아는 터라, 정권 초기에는 어정쩡한 기념행사를 시도하다가 나중에 6.29의 약속이 잊혀지길 바라는 태도로 바뀌었다. 그런가 하면 6.29를 이

끌어낸 항쟁의 가장 힘있는 지도자라 할 두 김씨는 자신들의 분열로 직선 대통령직을 군부세력에 헌납한 터라 6월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기가 쑥스러워 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호헌철폐'를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술적 전제조건으로 인식하여 6월을 통일의 달로 만들어 국민정서와 멀어지게 한 학생운동의 지도부와 6월항쟁에 소극적 참여 이상을 한 바 없어 이를 주도적으로 기념할 능력이 부족한 시민운동들 역시 6월을 6.10 또는 6.29의 달보다는 6.25를 기념하는 달로만 여기게 만드는데 한 몫을 담당했다.

1997년은 날치기 규탄·노동법 제정 등을 위한 총파업과 전국적 항의운동으로 6월 항쟁 10주년의 상서로운 출발을 이루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의미있는 10주년을 만드는 큰 사업으로 보면 그야말로 출발에 불과하며, 이 사업을 제대로 해내려면 세계체제와 분단체제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슬기로운 대응이 따라야 할 것이다.

6월이 한국전쟁이 발발한 6.25의 달이라는 사실 자체는 잊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일반 대중이 아닌 전쟁 통에 관용이 열리고 돈을 번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되었다는 것이다. 휴전과 더불어 정착된 분단체제에서 온갖 유리한 고지를 그들이 선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체제를 허물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심어져 6월 항쟁의 성취 후에도

'6.25의 달'을 '6월 항쟁의 달'과 결합하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지 못한 탓이 없지 않을 터이다. 즉 평화공존으로 출발하여 급격한 흡수통일을 방지하면서 분단체제를 제대로 극복한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고 그에 걸맞는 국가 형태를 창출하는 논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통일 후의 한반도 경제 또한 어떤 수준에서건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일 것임을 전제로 그 논리에 얼마만큼 순응하고 얼마만큼 항거할지에 대한 복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두자원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 80년대 민족민주 운동의 성장

91년 이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으나 권력의 분산 및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는 여전히 초보상태이다. 87년 6월항쟁은 많은 것을 바꾼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별로 바꾼 것이 없다. 그것은 군부 엘리트들 몰락시키는 했으나 새로운 엘리트들 등장시키지는 못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치는 물론 그 아래의 두꺼운 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는 오직 조금만 바뀌었을 따름이다.

6월항쟁이 분출하게 된 운동사적 경로 및 그 한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87년 6월항쟁은 바로 그전 기간 동안 학생, 지식인, 노동자들의 투쟁의 한 결실이자 이 시기 운동이 갖고 있었던 한계의 표현이다. 6월항쟁은 4.19에서 80년말 이후 87년초에 이르는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며, 과거 운동의 유형을 새로운 양상으로 반박한 것이다. 80년대 운동은 70년대 이전의 운동과 큰 단절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면으로는 하나의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의 운동이 당면한 문제점과 향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약간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중들의 제한된 생활상태라는 모순 구조를 창출하였다. 한국에서는 남북간의 전쟁과 분단이라는 현대사의 조건이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였고, 역으로 이 조건이 대외적·경제적 축적모델의 작동의 주요한 토대가 되었다.

위와 같은 서경을 갖는 한국사회는 대체로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래 그 지배형태의 변화, 즉 제한적이지만 정치적·경제적 자유화의 경향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변화는, 한편에서 세계의 정치·경제적 변화와의 적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하였는데 무엇보다 6월 민주항쟁에서 절정을 이룬 군사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은 민중운동의 제한적 역할과 부르주아정당들에 대한 전술적인 오류로 인해 민주변혁의 길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그후로서는 정치적인 병영지배가 이완되고 형식적이거나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성과를 간파할 수 있다.

97년은 노동운동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중운동 전체 차원에서도 중대한 해이다. 새로운 노동법제에 의해 재편된 노사관계와 하반기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는 21세기를 열어나갈 정치·사회적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날치기 무효화 투쟁과정에서 결성된 범대위가 한 시적 대척기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고 이범대위의 집적 성과를 계승하는 의미를 갖는 새로운 상설연대체인 '민주개혁사회단체연대회'가 출범한 것은 전선재편의 가능성이란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연대기구는 날치기 안기부법 원천무효, 개악 노동법의 민주적 재개정, 한보비리와 김현철 국정감사의 총체적 진상규명과 사법처리, 부정부패·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정치·경제개혁운동, 5·6공 인사사면복권반대운동 등의 당면 사안에 공동대응할 것이며 앞으로 전개될 정치·사회적 정세에 대한 대응책도 공동협업할 것이다.

따라서 민중세력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대중적 조건과 정세가 조성되어 있는 금년에 맞는 대선 국면을 정치세력화의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중기적 정치조직화를 위한 시발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21세기적 정치조직화와 민주권력 창출을 위한 총체적인 정치세력화 프로그램의 학습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제 민주세력이 함께 마련해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정리 : 강재은 기자>

◇ 21세기 민주세력 실천방향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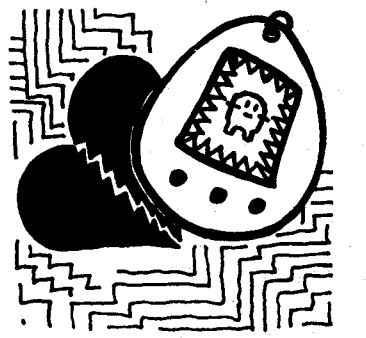
세계사적으로 20세기말은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세계의 전일적인 지배로 특징지어진다. 세계정세의 변화와 함께 한국사회 또한 하나의 전환기에 놓여 있다. 한국 자본주의는 1960년대 이래 세계경제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국가에 의한 국내외적인 자본동원과 특혜적인 자금 대공급을 달성하였고 그 결과 세계경제에 있어서는 패권주의적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도 선진개도국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사회는 이로써 한편에서 개발과 부르주아의 엄청난 부의 집중과 다른 한편에서 노동자계급과 민

세시봉

시대가 만든 노리개

공광섭 편집장

다마고치라는 전자애완동물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 게임의 목적은 우주에서 온 수수께끼의 생물 다마고치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 알에서 부화한 이 동물은 배가 고프거나, 주인과 놀고 싶을 때 전자음을 내면서 수시로 주인을 부른다. 주인은 먹이를 주거나 벌을 주는 등 8가지 명령을 이용해 이 동물을 키워 나간다. 틈틈이 연령, 체중, 컨디션 등을 확인 해지, 잘못하면 도중에 죽는 경우도 많다. 키우는 방법에 따라 열흘 정도면 훌륭한 성인동물로 성장한다. 실제 동물을 기를 때 따르는 불편함이나 번거로움 없이 깔끔한 애완동물 하나를 기를 수 있는 셈이다.



작년에 일본에서 선을 보인 이 게임기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많은 전자노리개중에 하나인 이 게임기가 왜 그토록 사람마음에 끌리는가. 그것은 다마고치가 다른 전자노리개와는 다른 유사생명체라는 것일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다마고치에는 있는 것이다.

언제부턴지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사라졌다.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집집마다 게임기와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인 것 같다. 아이들은 점점 무리지어 노는 것을 어색해 하고 심지어는 불안해하기도 한다.

급작스런 도시화로 우리는 이기적 자기만으로 비뚤해졌고 가공할 정보통신의 발달과 기계화로 서로 만나서 정을 나누고 인간적 체온을 느낄 기회가 적어졌다. 더구나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남을 배려하는 관용유지의 인덕은 퇴색해지고 말았다.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노모를 구타하는 아들, 유학까지 갔다 오고 유산을 일직 받기 위해 아버지를 죽이고 불을 질렀던 자식, 늙은 부모님이 싫어 여행을 핑계로 버리는 자식들.

부모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에게 있어 가장 많은 온정을 베풀어 주는 사람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젊은이들.

이 인간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애완동물과도 같은 유사생명체인 다마고치의 인기는 이 시대가 생산해낸 불가피한 소산물인 것이다.

곧 다마고치의 인기는 단순한 전자노리개가 아닌 현대의 젊은이들의 심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세상에서 다마고치 인기가 안타까울 뿐이다.

학술단신

방송법 세미나 개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언론정보대학원이 공동으로 '21세기 방송매체와 방송법'이라는 주제로 97년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늘 2시에 시작하는 이 행사는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김병목(경희대 법학연구소장)교수의 인사말로 시작한다.

문의는 961-0744, 961-0561 FAX: 961-0615

제21기 언론학교

민주언론운동협의회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매주 화, 목 저녁 9시에 언론학교 강의를 개설한다.

언론민주화를 염원하는 시민은 누구든지 참여가능한 이번 강좌

는 수강료 8만원이며 선착순 1백 20명 모집으로 민원협 교육관에서 실시한다.

문의는 02)326-1252~4 FAX: 326-1255

가정의 달 기념세미나

서울시와 한국가족복지학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3일 오후 1시부터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조가퇴직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갖는다.

문의는 (02)3707-9211, 710-9472

제 4회 국토문화기행

서울강북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6월 13일부터 14일 동해안으로 제 4회 국토문화기행을 떠난다.

관동팔경의 하나인 죽서루와 정선아리랑의 본고장인 여우아우라지를 거쳐 이효석의 생가도 방문한다.

문의는 (02)732-5560



▲지난 달 26,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6월항쟁을 필두로 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미래 - SK Telecom

“김영우 선생님의 책임감”

아마추어 무선(HAM)을 이용, 오지에서도 활용가능한 무선데이터통신 방법을 고안해 제1회 M&M 논문대상을 수상한 김영우 선생님 (당시 한국고원대학교 대학원 재학). 태백산 오지에 위치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정보통신의 혜택을 주고 싶다는 책임감이 그에게 논문을 쓰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미래를 책임질 SK텔레콤이 이제 정보화사회의 혜택을 넓히고 국가경쟁력을 키울 두번째 M&M 논문을 기다립니다.

제2회 M&M 논문대상 공모

- 참가자격**
국내외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생
- 논문주제(01래 주제중 택일)**
■ 멀티미디어 기반구조로서 이동통신의 발전 방안
■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이동통신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Marketing 전략
■ 국내 정보통신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Multimedia 서비스 구현 방안
■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방안
- 논문분량**
■ 본문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의(A4 Size 20매 내의)
■ 요약문 : 200자 원고지 10매 내의(A4 Size 3매 내의)
- 시상내역**

등위	인원	상금	부상
대상	1	1,000만원	소품
금상	1	각 500만원	해외통신업체 견학, 기념품
은상	2	각 300만원	
동상	5	각 200만원	
장려상	10	각 100만원	상패, 기념품
- 논문작성비 지원**
■ 단체접수 : 편당 10만원 ■ 개인접수 : 편당 5만원

주최 : SK Telecom

후원 : 정보통신부

주최 : SK Telecom

후원 : 정보통신부